

# 생태무용의 자본 형성 원리 탐구

김 옥 희\*

##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에콜로지와 사회자본

1. 자본의 전통적 개념
2. 자본의 사회적 의미
3. 생태의 자본성

III. 생태무용의 자본형성 원리

1. 의식의 자본성
2. 체험 자본
3. 생태무용 자본의 지속성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Research into principle of capital formation of ecodance

Kim, Ok-hee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new older people now can develop their potentials through volunteering in local community for the creative social participation's sake and also build up attitude toward communally shared valuable life and seek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new career. Namely, volunteering life of new older people can be regarded as positively creative cultural movement where we can enlarge social activity of talent sharing into economic activity of producing and make an effort to design a desirable old age life. With body reviving activity which builds voluntary network in the community and creates communicative relations, old age people provide opportunity of not only simple livelihood type jobs but also realistically practicing opportunity where individual development needs can be met through years old experience and intui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old people and pursuing humanely quality life will be provided. In other

\*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서울무용교육원장

논문투고일: 2014. 04. 20. 심사일: 2014. 05. 20. 게재확정일: 2014. 06. 09.

words, it can be seen as a case where we realize the value of social capital that builds up consistent system through creative social participation that fulfills sharing of pursuit of happiness.

**key words:** ecodance, community dance, social capital, self-organization

**주요어:** 생태무용, 커뮤니티댄스, 사회자본, 자기조직화

## I . 서론

‘접화군생(接化群生)’이란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 어울리며 서로 변화한다는 의미로 인간만이 아니라 무수한 동물과 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물과 땅의 기운 등 말 그대로 세상 만물을 사랑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소통하고 사귀며, 흔들리면서도 즐거움을 얻게 세워 스스로 생명력을 진화시키며 완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춤을 춘다는 것’ 역시 자신의 생명력에 대한 존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화, 진화하는 ‘접화군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채희완(2000)은 ‘접화군생’의 해석을 통해 생명사상이 실현된 구체적인 사회적 장치로서 두레조직을 들고 있다. 두레는 계급적 이해를 달리 하면서도 두레 공론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합의체를 통해 의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조직 내에서는 호혜적 규범으로 통하여 사회적 이상성과 개인의 고유성이 창의적으로 발휘되는 사회통합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조직으로서 ‘두레’는 오늘날 자본 형성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원초적으로 집단적 의식과 표현의 산물로서 존재되어온 무용 역시 개체적인 존재자일 뿐 아니라 유동하는 생명체로 인간과 서로 교류하면서 전체 우주 질서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협동적인 존재자로 표현되는 공동체성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 팽창, 시간과 돈의 압박으로 인해 공동체 생활과 사회생활로부터 꾸준히 이탈되어가는 현상을 보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이탈은 피폐화 된 관계로 인해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자살, 우울증, 불안 증세가 늘어나는 불길하고 놀라운 사실을 체감하게 한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의 지혜와 정신이 소멸되어 가족 안에서의 기본적인 연대감과 공동체적 사랑이 지역사회와 전체사회로 확산, 승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생태적인 삶의 구현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지역성의 회복은 나와 내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

는 인간관계를 실천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의식으로서 사회통합, 즉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사회자본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자본이 아닌 비경제적 자본으로서 인간관계의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등을 자본의 요소로 규정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D. 퍼트남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신뢰, 상호작용 등의 무형 자산을 통해서 유형 자산이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사회자본이란 용어가 예술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근거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중반부터이다. 그 이유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로 회자되었던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접착제, 사회적 응집력, 또는 사회적 포용 등이 현대사회에 예술적 효과로 강조되면서 예술 참여활동은 피폐화 되어가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자본의 역할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자본은 공동체적 생산성과 응집력을 개선시키는 개별 시민들과 단체들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예술 참여활동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나아가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자본으로 창출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에콜로지시대에 무용은 참여와 실천을 통한 무용의 내적 경험 과정이 결과로서 추구되는 ‘관계’의 가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community dance를 등장으로 공동체 무용의 접근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커뮤니티댄스는 인간 개별의 고유성을 차별이 아닌 차이와 다름으로 존중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참여와 소통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의식으로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한다(한혜리, 2011a:36). 또한 생태무용은 인간 고유의 생명력을 회복하여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타인과 함께 경험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적 삶의 무한한 여정에 다다를 수 있는 표현과 실천을 지속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생태무용(오레지나, 2010; 2011b)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사회자본의 형성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커뮤니티댄스의 무용 방법론과 생태무용의 개념과 구조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였으며, 박신의(2013)의 예술의 사회적 영향, 김인설(2013)의 예술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가능성을 선행연구로 하였다.

## II . 에콜로지와 사회자본

### 1. 자본의 전통적 개념

경제학에서 자본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나,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본은 인구·숙련·능력·교육 등의 비물질적 요소와 토지·건물·기계·장비 등을 포함하며, 또한 기업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중간재·완제품까지 포괄한다. 자본은 또한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나뉜다. 고정자본은 토지·건물·기계 등의 생산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않는 자본을 말한다. 유동자본은 생산중인 재화, 원자재, 판매될 완제품과 같이 재화의 형태가 변형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의 상대적 구조, 즉 다양한 재화들의 존재비율에 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실물자본 스톡<sup>1)</sup>은 예를 들어 숙련된 기술자나 원자재가 없다면 기계는 쓸모없게 된다.

또한 자본은 또한 인적 자본과 비인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예제 사회에서 인간은 가축이나 기계와 같이 자본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자유경제사회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가치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계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사회적 자본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 스톡 중 회계체제에 포함되는 부분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을 자본 스톡에서 제외시킨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고 자본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기업은 자본 자체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 금융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금융산업은 자본을 늘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방식이 일반화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내몰린 것이다. 따라서 산업자본은 대중의 '상대적' 욕망에 주목하여 상대적 결핍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갖고 싶게 만드는 대중의 상대적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테크놀로지, 브랜드, 스토리, 컬처 등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만능주의에 허덕이며 자기파멸적 소비에 의해 파산선고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며 그만큼 폐기하는 생태계의 항상성이 무너지는 현상 속에서 과잉생산과 소비로 인해 자원의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

1) 스톡은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한, 크기를 잴 수 있는 재화 전체의 양은 높은 보완성을 지닌다.

## 2. 자본의 사회적 의미

Ruskin, J.(1897)은 기계화와 획일화로 특징 지워 지는 당시의 자본주의가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생명자본주의의 역사적 단초를 제공한 것이었다. 고전적 자본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력이었다면, 생명자본주의의 3 요소는 생명, 관계, 창조 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대표학자로 유르겐 하버마스와 함께 20세기 초중반의 유럽지성계를 이끌어왔던 푸코 역시 그의 저작물 중 일부에서 생명정치 관리라는 제목으로 생명자본주의의 철학적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토의한 바 있다. 그리고 생명자본주의에서의 생산수단은 이제 기계가 아닌 지식과 경험(정신적, 육체적)이다. 생산관계 역시 노동,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생산이고, 생산과 재생산의 살아있는 유기체적 관계가 전체 자본주의 운영의 중요한 틀로 자리 잡게 된다.

노동조직 관계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공장질서의 표상인 top-down의 위계질서는 사라지고 평행적 관계의 네트워크 노동조직이 들어서게 되며 이들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협력을 이끌어냄과 언어소통에 기반을 둔다. 공장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공정의 표준화 그리고 노동의 분화specialist의 양산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조직에서는 삶 자체가 원료로 투입되는 관계로 기존 방식의 표준화, 특화 등은 무의미하게 되며 새로운 노동관계 정립이 요구되게 된다. 전통적인 노동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면서 모든 기준들이 가변적인 것이 되고 주관화되게 된다. 기존 자본주의 방식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제 모든 기업활동의 미션이 이윤추구나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닌 ‘행복추구’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관리가 핵심가치가 되며 자원은 이윤추구 능력이 아닌 지적, 관계적 역량이 되고 교환을 통해 사회적 관계로 쉽게 바뀔 수 있다(한경혜, 2000:65). 노동의 투입량과 산출이 타율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제 노동은 주관적 노동이 되고 자율적이며 경험에 기반한 것이고 관계적이며 창의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전통적 자본의 개념을 초월하며 등장한 새로운 자본 개념이 비경제적 자본이다. 비경제적인 자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Backer(1964)의 인간자본(human capital) 논의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 또는 “협력을 추구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가치나 규범”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가치와 규범에 진실과 책임의식이 따르며 호혜성이 있어야만 사회 자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그는 사회적 자본은 둘 이상 개인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적인 규범

으로 이 규범들은 실제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화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이 사회적 자본이 되려면 집단 내의 협력을 이끌 수 있어야 하므로 이들은 정직, 공동체의 유지, 의무나 호혜성의 준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덕목과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다.

### 3. 생태의 자본성

전통사회에서 유교 문화권은 특히 공동체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동양적 사유의 시발점이 바로 ‘하나(一)’를 원천으로 출발하기 때문이다(황준역, 2001:10). 동양에서 하늘(天)과 인간(人)과 땅(地)의 관계는 전일적(全一的)이며, 상호 관계적이다. 우주 자연은 거대한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로 보았다(임효선, 1996:158). 따라서 천인합일은 유교공동체의 이념적 원리인 동시에 조선기 공동체가 사회자본으로서의 연결망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천인합일의 하나 됨의 관점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전일적 관점은 공동체에 있어서 네트워크, 호혜, 신뢰, 신념, 규범 등 사회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교에서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며 도덕적·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서구 자유주의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시대 향촌사회 공동체에서의 개인은 공동체 속의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관계망으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은 상상할 수 없었다. 결국 유교공동체는 개개인의 단순한 집합을 넘어 지배자와 피지배자, 개인들 간의 끈끈한 연결망 속에서 유교적 신념을 공유하고, 도덕적 규범과 신뢰라는 사회자본이 존재하는 공동체였던 것이다.

전통사회의 농민조직은 논농사지대에서 시행되던 작업 공동체이며, 공동노동을 통해 마을 성원들의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 발전 시켰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향약, 두레, 계가 담당하였다. 특히 두레의 출현은 농사기술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생산력 발전의 결과였다. 즉 조선 후기 들어 논농사 지역에서 이양법이 발달한 결과 논농사에 김매기 작업 등 노동력의 집중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공동노동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면서 여기에 부합하려는 필요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두레였다.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의 형성은 협동체로서의 단결력을 강화시켜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했었다. 힘든 노동 가운데도 연대의식이 고취된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위로를 하며 흥겨운 농요와 함께 즐거운 노동을 감당할 수 있었다(최우영, 2006:57). 특히 두레는 기본적 공동체성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결사체로의 전화 가능성

을 잠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사항은 명시적 목적을 겨냥한 공동노동이 체계적 조직 차원에서 반복될 때, 거기에는 일상의 신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신뢰 관계와 형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조직적 공동노동의 과정을 통해 지도력, 숙련도, 물리력 등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레는 지배층과 독립된 자체의 농민조직이었기 때문에 유교 규범이 곧 두레의 규범을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동체성과 위계를 강조하는 두레의 규범에 그것이 원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인 신분차별 기능을 제외한다면, 유교는 공동체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 윤리가 확산되는 시기로 보아, 또 공동체라는 조직의 성격으로 보아 두레가 유교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도구적’ 동기보다는 ‘완성적’ 동기가 우세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힘든 노동으로 지친 심신을 서로가 위로를 하며 흥겨운 농요로 공동체적 연대를 형성하며 노동과 삶의 문화까지 전일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리고 협동체로서의 단결력은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체적 삶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integration)을 거치게 되고, 이것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넘어선 다른 주류 사회와의 연계성(linkage)이 형성되어 결사체의 성격을 보였다(최우영 외, 2007:132).

다만 전통사회의 농노조직은 노동(생산)이라는 한정된 목적이 있었던 만큼 전인격적 삶의 영위라는 향도의 확산적 성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구적 동기가 강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 공동체 두레는 유교사회의 규범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체의 규범을 형성하여 집단 내에 구성원 간의 평등적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통해 노동을 교환하는 공유된 삶에서 사회자본의 생태적 가치를 볼 수 있다.

### Ⅲ. 생태무용의 사회자본 형성 원리

생태무용은 의식을 통한 체험과 실천의 단계를 통해 ‘관계’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교환과정을 통해 관계를 확인할 뿐 아니라 동시성과 등가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관계 자체를 부인한다면 사회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끊임없는 교환과정을 통해 관계를 확인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자본이나 자원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

니고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성,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자본으로서의 교환은 자신만의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 등이 추구하는 것과 지향성 면에서 구별된다. 생태무용의 살림과 다움 그리고 어울림의 개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자본의 가치를 생태무용의 자본 형성 원리로 탐구하였다.

## 1. 의식의 자본성

의식이란 사회의 현상이나 가치관 등 어떤 대상을 체계적으로 의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지향성은 의식의 방향이며 실천의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간으로서 자기 인격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그것은 일상의 보통 상태의 자기 마음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 세계의 깊음과 넓음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실천적 체험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숨겨진 본질을 알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자기변용과 자기실현의 길이다. 자기를 변용시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본질을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묻고 그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湯淺泰雄, 이정배, 이한영 역, 2013:184). 즉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얻게 된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체험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들이다. 도교에서는 인간이 우환의식을 통하여 역도를 체험하게 되면, 현실적인 불안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 판단의 기로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인간의 주체성이 올바르게 자각되어 완성도 높은 삶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詹石窗, 안동준 역, 2011:159).

생명론을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생태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삶과 연결 짓는 생태무용은 무한한 움직임 ‘생성’을 사유하는 ‘내재성’의 발현으로 이미 존재된 무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 즉 가치관, 감정, 사상 등의 정신적 사유로서의 움직임이다. 즉 생태무용은 무용 장르로서 존재된 형식이나 형태가 아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몸을 발견하여 깨달음으로 이르는 것으로, 오레지나(2011b)는 몸의 생명성을 자기 안에 ‘모심’으로 보았다. ‘모심’의 진정한 의미는 곧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이 우주와 더불어 무궁하다는, 무궁의 삶을 깨달으므로 오늘 현대라는 이 황폐한 삶 속에 우주적 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체성은 생태사회를 지향하는 의식의 반영이며 실천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집단 내에 형성된 공동체 의식은 동일성의 의식으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관계성에 기초하여 새롭게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의 관계 내에서 형성된 신뢰는 고립된 속성이 아니라 집합체의 속성으로 사람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 간,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란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기대한 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로서 공동체 의식의 생성인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그 지속 기간만큼 서로 다른 도덕적, 정서적 집합 경험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혜리, 2014:65). 생태무용의 명상과 몰입은 생명성을 존중하고 관계의 차별과 소의를 지양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몸을 통해 자연의 전일성을 경험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의 역량으로서 공동체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완성적 동기에 이른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신뢰는 사회참여의 사회적 연계망 속에서 즉 생명의 도에 이르는 깨달음이 개인을 넘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식의 전환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욕망의 굴레로부터 진정한 자신에 이르는 집합의식으로서 호혜적 규범성 갖게 되는 자본으로서의 의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인간은 역사적으로 자신이 단순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우주라는 전체와 동일한 기운으로 관통되어 있음을 깨달음으로 마음과 기운을 회복하여 이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우주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명상과 몰입의 경로를 경험하게 된다. 생태무용의 명상과 몰입의 방법은 공동체 활동으로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집단적 정신에 참여하는 것이며, 서로 영향을 받고 또 반대로 전체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마음이나 우주의 마음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명상은 지구 또는 우주의 의식 수준과 연관되어 서로가 협력하는 호혜적 의식을 형성하는 태도로서 사회자본의 가치를 형성한다.

## 2. 체험 자본

인간이란 욕망의 덩어리이며, 인간의 역사란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된다. 생태무용의 원리로서 양생은 생태의식을 기반으로 생태적인 몸과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양생을 뜻한다. 양생은 몸에 담긴 생명성에 대한 마음과 의식의 진화에 대한 시스템적 견해가 담겨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건강과 치유에 대한 전일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詹石窗, 안동준 역, 2011:396). 즉 인체 오장육부의 존재와 그 관련양상이

양생주체의 생태를 구현한다고 가정하면, 사람이 대면하고 있는 우주의 상태와 여러 요소의 상호관계는 양생객체의 생태라고 말할 수 있다. 양생 주체와 객체의 생태가 비록 양대 계열을 이루지만, 이들은 동일한 모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교인들은 사람과 천지를 모두 도화의 결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도가 천지와 사람을 생겼을 때, 모든 것들은 질서정연한 상태였다. 그것을 화(和)라고 한다. 하지만 평화가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있는 법이다. 다툼이란 양생 주체와 객체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면서 조성된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이다. 이런 혼란 상태를 바로잡고 양생주체의 내재적 생태와 환경의 외재적 생태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도교인들은 현덕수양설을 힘써 주장했다. 마음속에 현덕을 보존해 기를 중화하는 것이 운화(運化)이기 때문이다. 도교에서 건곤의 덕을 제창하는 까닭은 양생의 주체와 객체를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인체는 그 모양이 천지를 닮아서, 천지건곤은 덕을 모방하면 음양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오장육부가 아주 편안해진다고 한다(詹石窗, 안동준 역, 2011:397).

따라서 도덕적 정서를 함양하는 것은 양생 주체와 객체의 내외적 생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양생은 하나의 체계로서 생태를 구성하는 요소가 복잡다단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형’과 ‘신’의 두 측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형은 물질적 형태의 존재인데, 이런 물질적 존재는 신체의 외양만이 아니라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과 혈관 등 까지 포괄한다. 이에 반해 형과 대응하는 것이 신이다. 신은 곧 신체 내부의 무형적인 지휘체계이다. 이 체계는 비록 무형적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형은 하드웨어이고 신은 소프트웨어로서 물론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형과 신의 관계는 일종의 살아있는 동태적 관계이다. 양생의 체험은 ‘형’과 ‘신’을 함께 수련하는 것으로 곧 ‘형’과 ‘신’이 합치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나아가 ‘도’와 상통하도록 해야 한다. 형신의 수련을 통해 생명의 실현과정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해 자아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詹石窗, 안동준 역, 2011:397).

도교에서는 생명 진화의 이론에 근거해 인간이 정기신을 갖추고 태어났으며 생명체로 태어날 당시에 이것들이 하나로 합일되어 있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의식이 열림에 따라 외계에서 오는 불량한 신호의 간섭을 받아 선천적 정기신이 점차 분리된다고 한다. 이렇게 분리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생명이 곧 끝장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생태무용에서 양생체험은 인간이 파편화된 상태로부터 전체적이고 통합된 존재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현실을 보다 인간적이고 인류에게 가치 있게 만들려고 결의를 증대시키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양생은 내적인 생태와 외재적 생태가 혼란을 겪으며 조화와 화합의 질서를 회복하는 체험이 곧 자본이 되는 것이다.

한혜리(2014:67)는 ‘참여무용’을 자신의 내적 경험을 위해 무용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스스로 인식하고 달라진 지식 환경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무용을 경험하며 이전 시대의 분리된 지식 세계의 벽을 넘는 용기를 가지고, 지적 탐험을 결심한 창의적인 개인들의 참여의 경험을 뜻한다고 하였다. 생태무용의 참여는 곧 양생의 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자신을 살리는 내재적 생태와 외재적 생태의 혼란을 바로잡아 사회적으로 각 개인의 고유성을 자기다움으로 표현되고, 나아가 생성적 유기체들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수평적 인간관계의 실현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생태적 사고에 의한 몸관과 움직임은 생명의 유기체적 시스템을 통해 인간관계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동체적 삶으로 다가가는 자본이 된다. 그리고 상호 소통하는 대칭적 관계에서의 공동체적 양생 체험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영역을 탐색하여 제시한다. 그래서 공동체 예술은 상상의 즐거움을 주고, 가능성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즉,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노력하게 만든다.

### 3. 생태무용 자본의 지속성

오레지나(2012:37)는 생태무용의 핵심개념을 기반으로 명상-표현-실천의 3단계로 프로그램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한 움직임의 반복이 아닌 자신의 성찰로써 무질서한 상태에서 혼돈에 빠지지 않고 환경변화에 따라 구성요소를 재조직하며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실천과 나눔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즉 프로그램의 원리를 넘어서 삶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각성을 촉구하며 생태무용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자기조직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기조직화’는 Prigogine, I가 창안해 낸 이론으로서 핵심내용은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불안정한 비평형 상태에서 미시적인 요동의 효과로 거시적인 안정적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안정적 구조를 ‘산일구조(dissipativestructure)’라고 하며, 이러한 과정을 ‘자기조직화’라고 불렀다. 즉 모든 개체가 끊임없이 생명력의 운동을 거듭하며 질서와 무질서, 혼돈과 정의 상태를 넘나들며 스스로 새로운 임계 상황을 전개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무수히 많은 생명들의 역동적인 상호종속과 상호작용의 과정들로 묶여있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변형이 되고 진행되며 형태를 발전시켜 안정된 구조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잡계에서는 이를 안정과 혼돈의 미묘한 경계 속에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로써 새로운 구조를 갖춘 혁신적이고 새로워진 질서를 창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최창현, 박장현, 2007:86). 생태무용은

생태적 위기의 혼란기에 새로운 질서로서 나타난 창발성의 결과이며 이는 예술이 생태적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여와 실천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속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생태계는 스스로 열고 닫는 과정을 통해 안정되고 조화로운 질서를 유도하려는 자기조직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는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부분은 전체에서 떨어져있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전체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는 모두 화합적인 결과를 향한 공진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적응의 방식을 펼쳐게 된다. 생태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창발을 통해 새로운 생명성을 얻게 되고 다시 그들끼리의 유기적 관계망을 통해 상호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큰 결과 안에는 복잡계 안에서 창발하고 다시 조직화하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각각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생태계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최창현, 2010:178). 따라서 자기조직화는 전체와 부분간의 상호되먹임의 결과로써,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인접해 있는 다른 부분에 자신을 동조시킴으로 계의 일정한 특성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부분들에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계(system)의 특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복잡계적 요소들은 모두 유기체적인 전일성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맺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최창현, 2010:173).

생태무용 역시 처음에는 변형된 사회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개인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생태의식을 기반으로 생태적 몸관과 움직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질을 가져오게 된다. 즉 자기조직화의 새로운 과정이 생성되어진다. 생명성은 창발의 주체로 전체 세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와의 안정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유기적인 관계맺음 속에서 평형을 유지하려 하기도 하는 것이다. 생태무용의 참여는 생명성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창발현상이 거듭되어지면서 생태계와 자신의 관계맺음 사이에서 질서를 되찾고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 생태계 자체는 그 고유의 생명성을 가지며 스스로 자기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단계를 거친 후 임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복잡계는 자기 스스로 새롭고 안정된 질서 구조를 찾으려는 진화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무용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해 상호되먹임의 과정을 통해 자기를 촉진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와 실천의 사회적 연계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기조직화를 구현하게 된다. 즉 공

동체 의식에 접근하는 생태무용은 집단 내 사람들과 무용으로 소통하기 위해 사회 각 단위의 공동체와의 조밀한 네트워크 형성하여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어떻게 그들과 관계 맺을지에 대한 다각적인 실천 내용과 함께 다양한 연계망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사회자본의 가치를 낳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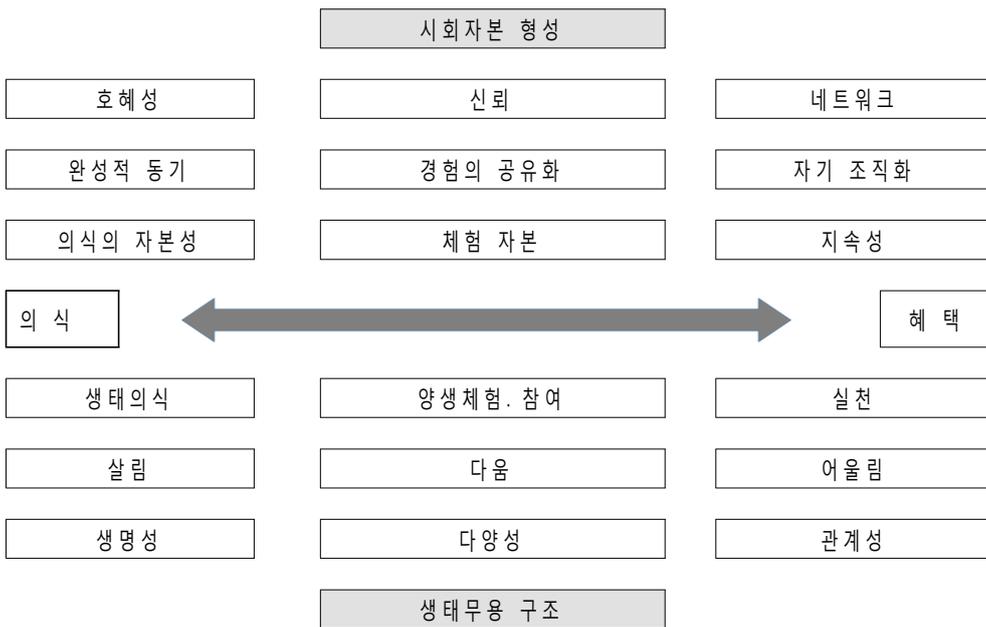


그림 1. 생태무용의 구조와 사회자본 형성

#### IV. 결론

본 연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무용이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위치하는가의 의미를 탐색하는 또 다른 접근이다. 자본의 역사적 변형과 함께 전통사회에 나타난 사회자본의 생태적 가치를 분석하고, 생태무용의 참여와 실천에서 나타난 의식성이 자본의 가치를 형성하고, 이러한 의식은 상호 소통하는 대칭적 관계에서의 공동체적 양생 체험으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영역을 탐색하는 공동체적 관계로 자기 조직화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탐색하였다.

첫째, 의식성은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가치와 공공의 선을 이루려는 완성적 동기를 추구하고 개체와 집단이 대칭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통해 호혜적 규범을 형성하는 자본의 가치를 형성한다.

둘째, 대생명의 도(道)로서 양생체험은 생태적 신체와 생태적 움직임을 통한 내적 경험의 질이 개체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타인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며 조화와 화합으로 질서를 회복하려는 체계에 기반하여 관계자본이라는 사회자본을 형성한다.

세 번째, 생태무용은 집단 내 사람들이 사회 각 단위의 공동체와의 조밀한 네트워크 형성하고 참여의 접근성을 통해 다각적인 실천과 함께 다양한 연계망 형성하는 자기조직화로 자본의 지속성을 추구한다.

생태무용은 의식- 표현-실천이라는 구조를 통해 자기의 고유한 정신적 가치를 살리는 자기다움의 표현이며,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대칭적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실천한다. 이는 무용이 현대 사회에서 감소되어가고 있는 관계의 교류를 회복하고 공동체적 교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으로 사회자본의 지속적인 자기조직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에콜로지 시대에 무용은 자신의 삶을 담고 의미부여할 수 있는 무용의 형태로 시대의 문제의식인 생태의식을 형성하고, 생태적 몸관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무용 경험이 곧 이 시대의 무용 형태와 내용으로 예술참여의 기쁨과 몰입을 통해 인간 본능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심미적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참여를 통한 무용경험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자본을 볼 수 있었다. 생태무용은 단순히 개인 혹은 공동체 예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활동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와 관심과 인식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 전이되어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신뢰를 형성한다.

---

## 참고문헌

- 김인설(2013),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축제로서의 예술”, **문화정책논총** 27집 2호.
- Putnam Robert D.(2000), *Bowling Alone*, 정승현(역, 2009), **나홀로 볼링** 서울:페이퍼로드.
- 마득용(1987),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 박신의(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분석과 정책적함의”,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논**

총 27집 1호, 57-74.

- 오레지나(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제3집**, 51-60.
- \_\_\_\_\_ (2011b),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2호**.
- \_\_\_\_\_ (2012), “에코댄스의 구성 원리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3집 2호**, 37-50.
- 최우영(2006),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본 전통사회의 농민조직”,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29집 제1호**, 43-59.
- 최창현, 박찬홍 공저(2007), **복잡계와 동양사상**, 서울: 지샘.
- 최창현(2010), **신과학 복잡계 이야기**, 서울: 종이거울.
- 채희완(2000), **한국춤의 정신은 무엇인가**, 서울: 명경.
- 한준상 외(2003). **지역공동체문화발전론**, 서울: 정민사.
- 한경혜(2000), “예술과 자본, 개인과 사회의 변증법”, 한국예술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한혜리(2011a), “무용의 사회적 개념 연구” - 공동체무용과 교육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제1호**.
- \_\_\_\_\_ (2012),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적 전략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제1호**, 41-57.
- \_\_\_\_\_ (2014), “참여무용의 복잡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1호**, 61-76.
- 황준역(2001), “유교 공동체주의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詹石窗(2006), **道交文化十五講**, 안동준·任曉禮(역, 2011), **도교문화15강**, 알마.
- 湯淺泰雄(2007), **身体の宇宙性 東洋と西洋**, 이정배, 이한영(역, 2013), **몸의 우주성**, 서울: 모시는 사람들.
- Baker, W.(1964), *Achieving Success Through Social Capital Tapping the Hidden Resources in Your Personal an Business Net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 Birren, J. E. and Warner Schaie, K.(2001),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Fifth Edition*, Academic Press.
- Calman, S.(2005) "Changing the way we work: Towards more flexible form of employmen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European Focus. October 2005.
- Ruskin, J.(1857), *Political Economy of Art*, London: Smith, elder and Co.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